

□ 인천광역시 군·구 브랜드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조례 (제안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군·구 브랜드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, 행정체제 개편 및 단체장 교체 등 정치적 주기에 관계없이 브랜드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함으로써 도시의 신뢰도와 지역 공동체의 자부심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'군·구 브랜드'란 각 군·구의 슬로건, 로고, 색채, 서체 등 시각 정체성 요소 및 이와 연계된 핵심 가치·이야기(Narrative)의 총체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산하 2군·9구(강화군, 옹진군, 계양구, 남동구, 부평구, 연수구, 미추홀구, 서구, 검단구, 영종구, 제물포구)의 공식 브랜드에 적용한다.

제2장 브랜드 정체성 보호

제4조(브랜드의 법적 보호) ① 이 조례에 의해 수립된 군·구 브랜드는 인천광역시 공식 자산으로 등록되며, 단체장의 임기 및 교체, 행정 조직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.

② 브랜드의 전면 교체 또는 핵심 요소의 변경은 제6조의 브랜드 시민배심원단 심의와 인천광역시의회 동의의 거쳐야 한다.

제5조(브랜드 변경 요건) ①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주민들의 '예산 낭비' 우려(22.0%)를 반영하여, 브랜드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주민 의견조사에서 3분의 2(66.7%) 이상의 변경 지지 확인
2. 인천광역시 브랜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인천광역시장 확인
3. 변경에 따른 비용·편익 분석 결과의 공개 의무 이행

제3장 주민참여형 브랜드 거버넌스

제6조(브랜드 시민배심원단) ① 각 군·구에 '브랜드 시민배심원단'을 설치한다. 배심원단은 지역 주민, 청년 대표, 소상공인, 지역 역사·문화 전문가, 교육·복지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, 공모 또는 추천으로 선발한다.

② 배심원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단체장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한다.

③ 배심원단은 브랜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감독, 브랜드 변경 심의·의결, 연 1회 브랜드 진단 보고서 제출 등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
제7조(군·구 브랜드 수립 표준 절차 준수 의무) 각 군·구청장은 신규 브랜드 수립 또는 전면 개편 시, 제10조에 규정된 주민참여형 브랜드 수립 표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.

제4장 브랜드 관리 조직 및 예산

제8조(브랜드 관리 상설조직) ① 각 군·구는 '브랜드 자산 관리팀'을 상설 조직으로 운영한다. 이 팀은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, 민간 전문가, 공무원이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구성하며, 단체장 교체 시에도 전문직공무원은 신분을 보장한다.

제9조(예산 편성 원칙) ① 브랜드 수립·유지·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은

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주민 우려(예산 낭비 22.0%)를 고려하여, 사전 비용-편익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한다. ② 연간 브랜드 예산 집행 내역은 인천e음 앱 등을 통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.

제5장 브랜드 수립 표준 절차

제10조(주민참여형 브랜드 수립 표준 절차) 각 군·구가 브랜드를 수립 또는 개편할 때는 제11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된 7단계 표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 각 단계의 구체적 방법과 소요 기간은 인천광역시장이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26년 7월 1일 신설되는 제물포구, 영종구, 검단구의 브랜드에는 공포 즉시 적용한다.